

그 사람 지금은

(28) 해남 출신 가수 오기택씨 <상>

■ 전라도 역사이야기

-운수동 절골 옛길

“올 해 남서 ‘오기택 가요제’ 가슴 설레”

매력적인 저음으로 '고향무정(1967년)'과 '아빠의 청춘(1966년)' 등을 불렀던 해남 출신의 가수 오기택(64)씨를 찾아가는 길은 조바심이 가득했다. 60~70년대 국내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그가 10여 년 전 '풍'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약간의 언어장애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귀찮게나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됐지만 전화상의 목소리로는 인터뷰를 할만하다는 판단이 들어 강행하기로 했다.

오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17평짜리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한때 잘나갔던 인기가수였지만 수입이 없어 지낸 지 10여 년이 지났으니 당연한 일이라 생각됐다.

그는 광주에서 올라온 취재진을 반갑게 맞았다. 집안에는 상으로 받은 각종 트로피와 상장, 감사패 등이 즐비했고 그가 준비한 각종 사진들이 그의 화려했던 과거를 되살렸다. 오씨는 생각보다 장예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왼발을 조금 절었으나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었다. 취재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만큼 말도 잘했다. 노래할 수 있다고 했다.

오씨는 해남군 북일면 흥촌리에서 태어났다. 호적상으로는 1943년생이지만 실제로는 1939년생이란다. 따라서 그의



가수 오기택씨가 지난 1970년 일본에서 재일교포 위문 공연을 하던 모습.<오기택씨 제공>

민초의 삶을 토해냈다. 당시 영등포는 사람마다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할 정도로 늘 땅이 젖어 있어서 '진등포'로 불리기도 할 정도였다.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3년 뒤에는 남공원·염영란 주연으로 같은 제목의 영화가 나왔고 노래를 부른 오씨까지 출연하기도 했다. 뿐 아니라 갑자기 영등포 땅값이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한창 인기를 끌고 있던 1963년 4월 해병대 '연예대'에 입대했다. 선배인 최희준, 도미씨 등이 추천해 준 것이다.

만기제대 후에도 '영등포의 밤' 위력은 대단했다. 노래를 들고오는 작곡가들이 줄을 섰던 것이다. 매일 두 곡씩 취입할 정도였다.

오씨는 66년에만 '아빠의 청춘' '고향무정' '충청도 아줌마' '마도로스 박'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단숨에 국민가수로 떠올

- 약력**
- ▲1943년 해남군 북일면 출생
  - ▲59년 해남중, 서울 성동공고 졸업
  - ▲61년 제 1회 직장인 콩쿠르대회 1등 입상
  - ▲63년 '영등포의 밤' 가버린 영아로 데뷔
  - ▲79년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장
  - ▲90년 싱가포르 렉스오피온 아마추어 1위
  - ▲2006년 빈야월 가수에슬공로상 수상

1963년 데뷔곡 '영등포의 밤' 대박

그 여파로 당시 영등포 땅값도 올라

실제 나이는 68세가 된다.

북일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남중학교에 다녔던 오씨는 같은 동네 선배인 박승남씨를 만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승남이 형님은 해남예총회장도 지낸 적이 있는데 제가 노래를 잘한다며 직접 기타를 치며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동네에서 콩쿠르 정도나 나갈 저에게 가수의 꿈을 심어주셨지요"

유씨는 중학교 졸업 후 서울 성동공고로 진학했다. 외삼촌 집에서 공부하라고 어머니가 유학을 보낸 것이었다.

"그런데 저는 공부보다는 가수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노래 학원에 다닐 생각이었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운동만 했어요. 태권도·권투·유도 등 조금씩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였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의 노래 실력은 유명했다.

"규율부장을 맡았었는데 비 오는 날이면 강당에서 전체 조화를 하는데 학생들이 시끄럽게 하면 단상으로 올라가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제가 가곡 '가고파' 등을 부르면 조용해졌어요"

오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1959년부터 2년 과정의 동아에 슬학원을 다녔다.

"고복수 선생님이 운영하던 학원을 마친 1961년 말 KBS에서 제1회 TV 직장인 콩쿠르를 열었습니다. 그 대회에 나가 '비극에 운다'라는 신곡으로 최고상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대회를 작곡가 김부해 선생이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며칠 후 저에게 찾아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오씨는 바로 한국체육관 건너편에 있던 총무로 3가의 '작가동지회' 사무실로 찾아갔다.

"당시 그 사무실에는 피아노 한 대가 있었고 제가 찾았을 당시 박시춘, 손목인 선생이 있었습니다. 김부해 선생이 직접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지요. 일종의 오디션이었어요. '비극에 운다'와 '가고파' 등 가곡을 몇 곡 불렀습니다. 그러자 김 선생님이 '됐다'며 바로 그 자리에서 '영등포의 밤' 악보를 주셨어요"

오씨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신세계레코드사에서 녹음에 들어갔다. '가버린 영아'라는 노래도 함께 녹음했다.

스무 살의 젊은 청년 오씨는 특유의 저음으로 '꽃은 비 하얗게 쏟아지는 영등포의 밤' 내 가슴에 안겨오는 사랑의 물결~/아 영원히 잊지 못할 영등포의 밤이여'라고 고단한

이후 '아빠의 청춘' '고향무정' 등 히트

두차례 10대 가수 등 국민가수로 부상

랐다.'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아래~'로 시작되는 '고향무정'은 타향살이에 지친 많은 사람에게 어머니 손길 같은 위안이 됐다.

이 같은 성공 속에 그는 두 번에 걸쳐 10대 가수상을 받았다. 66년엔 방송사와 신문사 등 전 언론사 선정 10대 가수, 67년엔 부산문화방송 선정 10대 가수에 각각 올랐다. 재일교포 위문을 위해 일본 원정 공연을 갈 정도로 그의 인기는 해외로까지 확대됐다. 오씨는 그렇게 1960~1970년대를 풍미했다. 그가 지난 1998년까지 녹음한 노래만 무려 1천 곡이 넘는다.

이제는 몸이 안 좋아 잠시 쉬고 있는 그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한다. 곧 해남에서 '오기택 가요제'가 개최된다는 것이다. "원래는 지난해 10월 열린다고 했는데 일 년 늦어지는 모양이에요. 올해는 열리겠지요"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평동산단서 접어드는 오솔길 나주~장성길 옛 모습 그대로

우리 전통 도로는 오늘날 고속국도처럼 지름길이다. 주요한 길목에 나들목과 정거장, 휴게소와 주유소가 있듯이 옛날에도 역(驛)과 원(院), 주막, 오리정, 마방과 샘, 절간이 있었다. 조선시대 나주~장성간 옛길을 따라가 본다.

나주읍성의 북문을 나서 밤남정(울정), 장성다리, 오목내, 평동 옥동, 원등을 거치면 황룡강변에 이른다. 냇가에 선암장과 어등산 기슭에 선암역이 위치했다. 호남대학교 못 미쳐 선암(仙岩)마을 434번지 박경철씨 집이 여터였다. 418번지 박만석씨 집에는 러말 선초 때로 추정되는 한길 높이 3층탑이 있으며 인근 383번지는 '큰샘'터다.

이 역촌은 연안차(延安車)씨 세초(1539~1576)가 입촌하여 행로·운로·연로 삼형제를 낳았고, 소촌동 솔머리(佛頭)에서 충주박씨들이 들어왔다. 마을에는 장승모퉁이, 솟대거리, 배낫드리 땅이름이 남아 있다.

한창 건설되고 있는 광주~무안간 고속국도 어귀가 될 광산구 운수동(雲水洞)에 이르면 평동산단길에서 북쪽으로 접어드는 오솔길이 보인다. 바로 옛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운수 절골마을과 무네밧재.

운수마을에서 승용차 한 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노퍽의 언덕길을 오르니 '연화(蓮花)약수' 표식물이 들어온다. 소나무정터를 거쳐 자운영이 만개한 자드락 논기를 따라 산골동네가 나타난다. 절골(寺窟)이다. 마을 어귀 차차 빗돌 앞에서 차관신(85)을 만났다. 차씨 집성촌으로 예전에는 서른 집이 넘었지만, 지금은 아홉 채가 남아 있으며, 뒤편에 '큰(빈대)절터'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289m 봉우리 남사면 240m 좁은 산67번지가 옛 여둔사(余屯寺)터고, 근처에 천운사(天雲寺)도 있었다.

1759년 여지도서에는 "광주에서 서쪽으로 40리 어등산(魚登山)에 여둔사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천운사 옛터에는 법당 주춧돌과 석축 일부가 남아있고, 서출동류수(西出東流水) 또는 '천운정'이라는 우물과 함께 확돌이 잔존한데 '경진유월십오일(庚辰六月十五日)'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절골 북편 차씨 세장터비가 서 있는 산마루는 '무네밧재(水南峴·90m)'라 부른다. 하남으로 남는 고개로 주목도 있었다. 전설에 중과 처녀의 못 이룬 사랑 이야기 속에서 '물이 넘어갔다'고 하니, 물넘이 곧 분수계를 의미한 듯하다.

옛길을 따라 한성 길을 재촉한 나그네는 하남공단의 원주민 마을인 말목(馬項)시암에서 목을 축였다. 큰 우물이 있는 동네란 뜻인 하나물, 한우물(大井)이 하남(河南)이 된 것이다. 시오리 길을 가면 장성 남면 신거무다리에 다다른다.

연화약수터 어귀~절골~무네밧재~마항샘터에 이룬 십리 길을 옛길 보전지구로 지정하여 활용하면 문화수도 광주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새향토문화진흥위원장)

■ 위성 412번 ■ 케이블 TV 광주 42, 60번, 나주 60번, 목포 59번, 담양 42번

**CBS**

영·혼을 사로잡는 힘  
광주CBS TV

날마다 감탄하세요  
은혜와 감동이 쏟아집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해...

광주CBS의 비전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TV강단 매일 새벽 5시 30분 ~ 6시

TV강단 매일 오후 3시 5분 ~ 3시 35분

<b>월</b> 허태호 목사 (새희망교회)	<b>화</b> 송재식 목사 (광주서림교회)	<b>수</b> 박은식 목사 (광주서현교회)	<b>목</b> 윤세관 목사 (광주계림교회)	<b>금</b> 이길수 목사 (광주예향교회)	<b>토</b> 리종기 목사 (빛과사랑교회)
<b>월</b> 주연도 목사 (광주중성교회)	<b>화</b> 최학후 목사 (기장 광주영림교회)	<b>수</b> 손송기 목사 (하남영광교회)	<b>목</b> 김성원 목사 (광주중흥교회)	<b>금</b> 이상복 목사 (광주동명교회)	<b>토</b> 백주석 목사 (광주포도원교회)